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2호【루계 제25465호】주제 105(2016)년 11월 17일(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 올려가는 만선의 배고동 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물고기대풍, 희한한 《이채어경》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미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이룩한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기쁨을 더해주며 조국의 동해전역에서 어로전투의 승전포성이 날마다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사나운 날바다를 헤가리며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려 지난 11월 7일까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년간 물고기잡이목표를 침범해낸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도루메기 집종어로전투기간 날마다 최고 1만여t의 도루메기를 잡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례없는 물고기잡이성공을



이룩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최근 며칠사이 수천t의 도루메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희한한 물고기대풍소식을 한시바삐 전하고 싶어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이차 오면서 배전에서 바라보니 수산사업소와 문화주택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볼만 하였고, 통해지구에 황홀경을 이룬 어촌마을이 일떠섰다고 대안쪽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모든 대상

을 면 후날에도 손색없이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한해사이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당의 결심이라면 바다도 메우고 산도 뛰 옮기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 정신과 투쟁기풍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물고기대풍을 일으키기 위하여는 모든 대상물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큰 배들을 여러척 현충계류할수 있는 부두와 방파제, 물고기부림과 저장, 가공을 위한

훌륭히 건설된 조선인민군 5월27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통해지구에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을 파시하며 멋들어지게 일떠선 조선

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는 수산물 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명당자리에 수산사업소의 위치도 잡아주시였으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과 견해주시었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큰 배들을 여러척 현충계류할수 있는 부두와 방파제, 물고기부림과 저장, 가공을 위한

물을 면 후날에도 손색없이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한해사이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당의 결심이라면 바다도 메우고 산도 뛰 옮기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 정신과 투쟁기풍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 올려가는 만선의 배고동 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물고기대풍, 희한한 《이채어경》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항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건설에서 발휘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부강조국건설력사의 한페이지에 새겨넣고 후대들이 따라배우게 해야 한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인계주시면서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다 한복판에 세워져있는 부유식작판물을 보시고 저것만 보아도 사람의 정신력을 발동시킨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 당정책을 인민군대가 어떻게 관철하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올해에만도 인민군대가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는 물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정말 큰일을 해놓을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인민군대에서 철입식, 화선식당장치사업을 잘하였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통합조종실, 행동가공장, 동종임가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상람

색과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 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기상예보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기가공지휘체계,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지휘체계 등을 완벽하게 구축해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천 t 능력의 현대적인 초급동 및 팽동시설들도 훌륭히 갖추어놓았고 물고기세척, 선별, 정량공급, 자동계량, 물주입, 급동, 배동 등 모든 가공공정이 자동화통신화, 로봇화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로보트가 팽동한 물고기를 척척 이적하는 모습은 정말 볼만 하다고, 로력을 절약하고 위생성을 보장하면서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줄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기배에 오르시여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퍼올리는 모습과 아외하랑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 팽동저장실마다에 금괴처럼 그

득하니 쌓여있는 물고기더미를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물고기잡이실래도 일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해로구 들마다에 물고기비린내가 짙 차넘치는데 이 냄새를 맡으니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부모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있다는 보고를 매일 받으면서 너무 기뻐출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얼마전 섬방어대들을 시찰하면서 동해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식탁에 놓여있는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화회관과 어로공들이 살게 될 다층주력지구도 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을 잘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잡이성과로 당의 의도를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현대적인 수산사업소를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어이사람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는 각오와 결심을 안고 물고기잡이전에서 변일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랑장을 비롯한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실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저장고마다에 명년도 9월까지 공급할 물고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서

진다고 하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를 조직한 보람이 있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공급시키려는 자신의 마음에 자기들의 마음도 합쳐 많다고 하시면서 풍랑시나온 날바다와 싸우면서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는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업소라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원아들의 친부모, 양로원 로인들의 전자식이 된 심정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면으로 계속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 올려가는 만선의 배고동 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물고기대풍, 희한한 《이채어경》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하시면서 정말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르전사들은 기적같은 물고기잡이성과를 통하여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을 확증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지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의 수산부문에서 자그마한 성과를 놓고 만족해할 때 인민군대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르전사들은 사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비교조차 할수 없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 비결은 황금해력사를 창조하는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길에

서 비상한 각오와 결사판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과학수산을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참치양, 기망일 어획량을 늘일데 대한 문제,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300일이상의 출어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조급증 및 련동시설들을 그르히 갖추어놓을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들며 대한 문제, 수산사업소별, 배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는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으며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간곡히 호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철주야의 현지도강행군 길에서 자기들의 일머리에 몸소 뛰어오시어 크나큰 사랑과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황금해력사창조의 앞장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며 즐기차게 올려갈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 올려가는 만선의 배고동 소리와 더불어 펼쳐진 물고기대풍, 희한한 《이채어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항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 사업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시정운동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현직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시정은동후 지난 46년간 귀국정부와 인민은 하페즈 알 아사드각하와 당신의 올바른 지도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재확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105(2016)년 11월 1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로씨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10일 로씨야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전문을 올리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 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머니날을 맞으며 모범적인 어머니들, 녀맹원들, 녀성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은 나라 전민공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날을 맞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한 녀성들과 모범적인 어머니들, 녀맹원들, 녀성일군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을 지닌 우리의 어머니들, 녀성들은 혁명의 계승자, 부강조국건설의 기동강들을 역세게 키워 내세우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기며 사회주의의 대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꽃피우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동원투쟁을 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녀성들이 온 나라의 축복속에 어머니날을 즐겁게 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축하공연도 마련해주신데 이어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사랑에는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령방이며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담담자인 우리 어머니들과 녀성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을 바라는 믿음과 기대가 어려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6일 4.25분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한 녀성들, 평양시안의 모범적인 어머니들, 녀맹원들, 녀성일군들, 전국녀맹예술포조총합공연 참가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가 선물전달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원어머니의 뜨거운 정으로 우리 어머니들과 녀성들에게 대해 같은 은정을 거들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마다에는 녀성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맹님들의 사랑과 대로 어머니날을 제정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도 마련해주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과 온 나라 어머니들, 녀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의 운명과 행복, 미래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그는 오늘날의 이 영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

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베풀어준 총정과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머니로서,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주시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은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는 조선로동당의 참된 딸, 단마사대의 녀성현명가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어머니들과 녀성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한복수배바위를 더욱 억세게 떠밀어나가며 시대의 녀성현명가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원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참가자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입원단심 총지하게 만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기자

